

광주공항 국제선, 무안공항 이전 안된다

광주, 국제도시 발돋움 '찬물'

“어떻게 확보한 노선인데...” 경제계 등 반발 승객 되레 감소 무안공항에도 별 도움 안돼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확고한 데다 이에 대한 광주시와 광주 지역 경제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광주와 전남의 갈등마저 우려되고 있다.

건교부와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 조기 정착을 위해 광주공항의 국제선 이전이 시급하다는 입장인 반면, 광주시와 광주지역 경제계 등은 광주 경제 자체를 추락시킬 수 있는 조치라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건교부와 전남도는 광주공항을 운항중인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6개 국제선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해 기존 노선 외에 싱가포르 등 동남아를 포함, 주당 42편의 국제

선을 운항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광주~무안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광주공항의 국내선도 수요를 감안해 이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방침대로 광주공항의 국제선 기능을 무안으로 이전할 경우, 단순히 이용객들의 불편 가운데 그치지 않고 광주는 주요 전략산업의 정책 방향을 대폭 수정해야 함은 물론, 도시의 위상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주는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컨벤션부로 설립 등을 통해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됐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진행되는 등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선 이전은 컨벤션산업은 물론 호남일번지이자 문화중심도시로서의 위상 및 기능을 현격히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또한 광주지역 여행업계는 무안국제공항 건설이 시작됐을 당시 광주공항의 국제 노선은 1개에 불과했지만 이후 광주지역의 노력으로 국제노선이 6개로 증가했는데, 무안공항이 자체적으로 노선을 확보하지 않고 광주 노선을 가져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공항의 국제선 대부분은 중국과 일본 등 단거리 노선이지만 광주·전남 동부·전북권역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나름대로 수익성을 갖춘 모델이다. 그러나 무안으로 이전할 경우 승객 감소가 불가피해 광주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무안공항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

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이 무안공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광주 경제에만 타격을 입혀 양 시·도 간에 갈등만을 남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대구·부산 등 영남지역에서는 동부권 국제공항 건설을 서두르고 있고, 전북지역도 김제공항 건설을 각각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무안공항 조기정착과 광주공항의 위상정립을 위해서는 양 공항을 동시에 운영하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안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광주 국제선 이전 보다는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 및 자구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양 공항을 동시에 운영·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다음달 8일 개항 예정인 무안국제공항 전경. 무안공항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주공항 국제선 폐지를 통한 단순한 기능 이전보다는 자체 경쟁력 확보 등 독자생존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위직량기자 jrvi@kwangju.co.kr

광주서 무안공항 이용때 추가비용 최대 14만원

버스 이용때 3만4천원... 年 총추가비용은 100억원 달해

광주시 서구 지평동에 사는 김의태(39)씨는 광주공항 국제선 운항이 오는 11월 9일부터 중단된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다. 사업장 한 달에 두 차례 이상 중국 상하이로 오가는데 국제선이 무안공항으로 이전되면 적잖은 추가경비가 들기 때문이다.

김씨가 광주공항이 아닌 무안공항을 이용하면서 생길 추가 비용은 얼마나 될까. 김씨는 택시(8천원·이하 비용은 모두 왕복 비용)나 공항 버스(2천원)를 이용, 광주공항에서 상하이행 국제선에 몸을 실었다.

승용차를 탈 경우 광주시청~계수로~광주공항 간 6.2km를 달려도 휘발유 1천674원어치면 됐다. 콜밴도 3만원이던 왕복

이 가능했다.

하지만 광주공항에서 국제선을 탈 수 없게 돼 자가용·택시·콜밴·시외버스·기차를 이용하면 1만7천원~14만원의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반테 승용차로 무안공항까지 50km를 가는데 드는 휘발유 값은 1만3천500원 필요하다. 내년 6월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41km·현 공정률 92%)가 개통되면 그 비용은 1만5천700원(휘발유 값 1만700원, 통행료 5천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무안공항까지 택시를 타면 왕복 13만원, 콜밴을 부르면 14만원이 든다.

시외버스의 경우 광천동 터미널~무안

을 무안 버스터미널 간 1만원 무안 버스터미널~무안공항 택시비 2만4천원을 더해 3만4천원을 내야한다. 기차는 광주역~무안군 몽탄면 무안역 무궁화호 7천원, 무안역~무안공항 택시비 4만원을 더해 4만7천원이 추가된다.

통계청이 2004년 발표한 '해외여행 경험 및 횡수'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지난해 광주공항 국제선을 이용한 광주시민은 7만3천360명. 이를 기준으로 할 때 광주에 사는 사람이 무안공항까지 가는 데는 ▲자가용 12억6천900만원 ▲택시 95억3천600만원 ▲콜밴 102억7천만원 ▲시외버스 24억9천400만원 ▲기차 34억4천8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광주공항은 중국 상하이·선양·장



사 직항로에 주9편(동방항공 7편·대한항공 2편)과 국내선 하루 34편이 운항하며, 지난해 이용객 수는 162만9천 명(국내선 150만5천 명, 국제선 12만4천 명)이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실로 드러난 변양군, 감독 선정 외압

정치권에 휘둘린 미술계 광주비엔날레 위상 흠집

광주비엔날레 제단이 비엔날레 공동예술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치권의 압력에 휘둘렸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광주비엔날레의 도덕적 위상에 커다란 흠집을 남기게 됐다.

특히 감독선임 전권을 행사했던 한갑수 전 이사장이 변양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외압에 의해 신정아씨를 감독으로 선임한 정황이 확인됨으로써 순수 미술 행사인 비엔날레가 '미술 정치판'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안게됐다.

21일 서울서부지검의 수사 결과 변 전 실장이 지난 7월 한갑수 전 비엔날레 제단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신씨를 감독으로 선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수사 결과는 그동안 광주비엔날레 감독 선정이 사전 짜여진 각본에 의해 진행됐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결국 '한 전 이사장에게 비엔날레 감독 선임권을 일임하자'는 의결이 이뤄진 지난 6월 27일 감독선정소 위원회의 결정이 신씨를 감독으로 밀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는 것이다.

이 회의에서 이종삼 서울대 명예교수(선정소위 위원장)가 일부 이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감독선임권을 이사장에게 넘기자'는 쪽으로 회의 분위기를 몰아간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감독선정소위가 감독선정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한갑수 당시 이사장에게 선임권을 넘김에 따라 당초 감독 후보 물망에 오르지 못했던 신씨가 감독으로 전격 발탁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한 전 이사장이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정치권 외압은 없다', '신씨의 감독 선임은 후보 인물난에 따른 교육적이었다'는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세간의 의혹을 사실상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번 수사결과와 신씨의 감독 선임배경에 한 전 이사장과 변 전 실장의 오랜 공직인연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항간의 추측이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 전 이사장은 그동안 "신씨 문제와 관련해 변씨를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해 왔었다. 한 전 이사장이 1993년 경제기획원 차관일 때 변 전 실장은 과장으로 일한 바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 전 이사장이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감독선임에 외압은 없었다"고 거듭 주장한 것도 공직 후배인 변 전 실장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사격'이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감독선정소위원장이었던 A씨는 "그동안 신씨의 감독선임과 관련해 신씨를 밀어주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순수해야 할 미술계에까지 정치권의 입김이 미쳤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ynpark@kwangju.co.kr

여수엑스포 사절단 美·남미 방문길

내달 5일까지 유치 활동



오현섭 전남 여수시장과 김정민 여수시의회 의장 등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사절단은 내달 5일까지 일정으로 지난 20일 미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방문길에 나섰다.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사절단은 오는 24일 미국 마이애미 리츠칼튼 호텔에서 중남미 BIE(세계박람회기구) 정부 대표 현대기아차 지역본부장 초청 만찬을 갖고 여수박람회 유치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과 중남미 BIE 26개 회원국 대표 부부, 서갑원 국회의원, 정찬용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 상임부위원장, 현대기아차 지역본부장 70여 명이 참석한다.

사절단은 또 오는 2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남미지역연합회 대표자 회의에 참석, 유치 지원 활동을 펼친다. 29일과 30일에는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 및 한국대사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유치 협조를 당부한다.

다음달 1일에는 브라질을 방문, 브라질 국회의원들에게 지지를 요청하고 한국대사관을 방문, 대사관 직원들을 격려한다.

한편 여수박람회 유치를 돕기 위해 민간인 위주로 구성된 여수지구촌사랑나눔회에 전달된 기탁금이 21일 현재 3억 2천7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와 탄자니아 의료 봉사활동을 펼쳤던 여수지구촌사랑나눔회는 박람회 개최지 투표일인 내달 27일 이전에 아시아 저개발 국가를 방문해 의료 봉사활동을 한차례 더 펼칠 계획이다.

개끗한 정치후원금
우리 정치가 바른 길로 갑니다

▶ 후원금의 100%가 정치자금으로 사용됩니다.
▶ 후원금의 100%가 정치자금으로 사용됩니다.
▶ 후원금의 100%가 정치자금으로 사용됩니다.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